

浮屠에 나타난 雲龍紋에 대한 研究

李 禮 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目 次〉

序	Ⅲ. 造形樣式의 變遷
Ⅰ. 雲龍文의 起源과 意味	Ⅳ. 結論
Ⅱ. 浮屠에 있어서의 雲龍文	

序

예로부터 지금까지 龍은 우리의 精神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많은 說話는 물론, 彫刻, 工藝, 陶磁器, 織物 등 미술진반에 걸쳐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또한 龍은 王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民間信仰의 대상으로 전개되기도 하는 등 우리생활 여러 곳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빈번하게 표현되어 온 雲龍紋은 다른 문양에 비해 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기왕에 나온 논문들은 龍의 기원이나 의미를 설명하면서 주로 雲龍紋이 裝飾紋樣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를 열거하거나 어떤 作品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資料로서 다루고 있어 그 내용과 양식의 변화과정을 살피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雲龍紋을 研究할 수 있는 資料로는 古墳美術品, 梵鐘, 銅鏡, 陶磁器, 浮屠, 碑, 服飾 등을 들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浮屠를 통하여 雲龍紋을 살펴보고자 한다.

浮屠는 일반적으로 僧侶의 墓塔을 지칭하는 말로서 新羅時代末期부터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계속 건조되면서 면면히 이어져온 불교건축물이며, 보통 主人公의 行蹟을 기록한 塔碑를 동반하기 때문에 建立年代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화려한 表面裝嚴이 있어서 時代的 背景과 더불어 美術史에 중요한 研究資料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雲龍紋이 어떠한 樣式을 가지고 時代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雲龍紋을 통해 연대가 확실치 않은 浮屠의 建立時期도 추정해보고자 한다. 第Ⅰ장에서는 龍의 起源과 意味를 알아본 다음 Ⅱ장에서는 浮屠에 있어서 雲龍紋이 조각되게 된 배경과 그 위치 및 형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장에서는 각기 뚜렷하게 구분되는 樣式을 나타내는 浮屠를 선정하여 4기로 나누어 時期에 따라 배치되는 장소와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이러한 순서로 고찰한 것을 Ⅳ장에서 체계적으로 개관해보는 것으로 마무리

리를 짓고자 한다.

I. 雲龍紋의 起源과 意味

龍은 실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되었기때문에 그 출발이 매우 다양하며, 時代와 文化 民族을 달리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東洋에서 龍이라는 개념이나 기원은 中國에서 형성되어 韓國 日本 등으로 전래되었지만 일단 수용된 후에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용은 東洋文化 속에 크게 자리잡아 많은 說話에 등장하였고 문헌에 기록되고 미술로 표현되어 왔다. 성격 또한 神的, 종교적 위력을 가진 靈獸로서는 물론 후세에는 왕의 상징으로 또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즉 용은 모든 상상의 영물이나 현실의 鳥獸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였다.¹⁾ 그러나 정작 龍의 기원이나 속성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說이 분분하여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龍의 起源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기원설은 黃帝가 땅의 덕을 얻어 黃龍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외에 상상동물설, 뱀기원설, 나가(Naga)기원설, 서방전래설, 기상현상설 등이 있고²⁾ 또한 農耕民族이라는 측면에서 본 物神숭배사상에 관한 것들이 있다.³⁾ 현재 용형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殷代 출토품을 보면, 대략 기원전 3000년경 仰韶文化時代에 만들어진 채문토기에서 古代 龍形을 볼 수 있다. 龍은 물에 살며, 비를 내리게도 하고 천둥소리를 듣는 동시에 움직이며 하늘을 날 수도 있다는 여러 설명들에서도 다양한 기원을 갖게 되는 이유를 발견한다. 결국 어느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諸說과 諸要因이 서로 복합되고 이상화되어 龍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龍은 상상의 동물이므로 형상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龍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들을 통해 대강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三停九似說이 있다.⁴⁾ 즉 머리에서 어깨, 어깨에서 허리, 허리에서 꼬리까지가 각기 相等하며 빨은 사슴을 닮고 머리는 낙타를, 눈은 토끼를, 이마는 뱀을 닮았으며, 배는 이무기, 비늘은 물고기를, 발톱은 매를 닮았고, 손바닥은 호랑이, 귀는 소를 닮았다는 것으로, 각기 동물의 이상적인 부분을 모아 龍의 모습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용은 물에서 나는데 五色을 하고 헤엄쳐 다니므로 神이다. 용은 작아지려고 하면 蠶蠶처럼 작아지고 커지면 天下를 다 뒤덮을 수 있다. 또 위로 오르려고 하면 구름 위로 오를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깊은 샘에 들어갈 수도 있다. 변하지 않는 날이 없고 위, 아래로 오르내리지 않을 때가 없

1) 張素賢, 『動物의 美術』 서울:悅話堂, 1979. p. 64.

2) 張素賢, 위의 책, pp. 66~70.

3) 許英桓, “龍文과 中國美術”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II』, 서울:一志社, 1987, p. 118 참조.

4) 宋, 羅願, 『爾雅』의 참고서인 『爾雅翼』 卷28 龍條 참조.

“…三停九似之說謂自首至膊膊至腰腰至尾皆相停也九似者角似鹿頭似駝眼似兔項似蛇腹似蜃鱗似魚爪似鷹掌似虎耳似牛…”

으니 神이다.”⁵⁾

“龍을 神이라고 하는 까닭은 스스로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고, 드러냈다 숨겼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

라는 표현에서 보이 듯 대부분 용을 신격화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괴한 형상과 복잡한 표현은 어떻게든 용이라는 동물을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므로 또한 時代精神의 힘에 의해 한없이 변화하는데 漢代 이후 敬天思想이나 정치권력과 결합되어 구체적인 의미를 띠게 되면서 활기있게 미술품에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의 옛 문헌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하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최고의 영물인 용은 하늘의 아들이며 이 地上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구사하던 天子 즉 王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이후 왕의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용의 미술은 크게 전개되어 용과 관계되는 궁정의 많은 물건들은 물론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곳에 용을 장식하였던 것이다.⁷⁾

우리나라에서 龍이 완전한 모습을 처음 보이는 것은 古墳壁畫에서이며, 漢代의 定型化되고 陰陽五行思想 등에 의해 윤색된 용이다. 四神圖에서 보이는 용은 靑龍으로 동쪽을 가리키며 태양신을 상징한다. 형태를 보면, 머리에 뿔이 있으며 긴 혀를 내밀고 몸은 비늘로 덮혀있다. 다리는 4개로 羽毛를 휘날리고 있으며 날개가 표시되기도 한다.⁸⁾ 용은 삼국시대 고분벽화나 공예품 뿐만 아니라 神話나 說話에서도 보이는데, 특히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와 습합하여 護法 護國龍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용에 대한 관념은 불교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三國遺事』에는 龍에 관계된 기록이 종종 보이는데 北扶餘의 것이 1例, 高句麗의 것이 1例, 百濟가 2例, 駕洛에 관계된 것이 1例, 新羅의 것이 22例이다. 이들은 建國神話와 얽혀 있기도 하지만 주로 불교와 관계된 것들이다. 古代國家가 王權中心의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佛敎를 받아들였다고 볼 때, 불교는 당연히 호국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면서 國敎化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護國佛敎와 어울려 佛法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 용이 결부된 것은 용이 가진 여러가지 성격이나 의미상 적격이었을 것이다.

한가지 흥미있는 견해를 소개하면, 불교와 국운의 성쇠에 따라 용들이 그 양상과 성격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즉 불교가 크게 흥하고 국운이 창성하였던 진흥왕 이후로부터 통일을 완성한 전성기의 경덕왕대에 이르기까지는 신라의 龍神들이 한결같이 활기차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불교가 침체하고 국정이 혼란하기 시작하던 원성왕 때부터는 용신들이 무력하고 허약

5) 『管子』, 卷第十四, 水地篇三十九 …… 龍生於水被五色而游故神欲小則化如蠶蠋欲大則藏於天下 …… 變化無日上下無時謂之神 …….

6) 『論衡』, 卷六 龍虛篇 …… 龍之所以爲神者以能屈伸其體存亡其形未足以爲神也 …….

7) 張素賢, 앞의 책, p. 77.

8) 날개는 페르시아 미술의 특징으로 中國에서는 漢代에만 나타나고 있어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 수입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三國時代에만 나타나고 있다.

하여 매우 소극적인 비활동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현상은 비단 說話뿐 아니라 미술품에서도 보이는데 불교 조각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으며 本論의 주제인 浮屠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龍에 대한 사상은 그대로 불교국인 고려로 이어졌으며 불교적 의미와 상징 이외에도 왕의 권위와 위엄 등의 의미가 더해져 복잡하고 다양해져 갔다.

II. 浮屠에 있어서의 雲龍紋

1. 雲龍紋의 施紋背景

雲龍紋은 신라시대末期 雙峰寺 澈鑑禪師塔(868년)을 시작으로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부도의 표면장엄으로서 끊임없이 시문되어져 왔다. 龍을 紋樣으로 채택하게 된 동기는 辟邪, 吉祥, 權威, 祈福, 呪術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浮屠의 표면장엄으로서 雲龍紋은 불교적인 성격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까닭은 부도라는 造形物 자체가 佛教의 소산물이며 그것을 장식하는 문양은 한결같이 불교적인 것이어야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雲龍紋이 조각되는 가장 큰 이유도 佛教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佛教經典에는 龍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그 가운데 몇 예를 보면, 釋尊이 成佛한 뒤에 가장 먼저 佛陀로 부터 三歸 五戒를 받고 世間에서 최초로 優婆塞(在家弟子)가 된 것이 龍王이라고 한다.¹⁰⁾ 또 迦羅龍王 다음으로 三歸 五戒를 받은 目眞龍王은 석존을 궁전으로 초대하였는데 날씨가 악화되자 자신의 몸으로 佛身을 감싸 보호했다고 한다.¹¹⁾ 이것은 龍의 佛身保護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이외에, 佛陀가 諸龍王들에게 불법을 수행하고 받드는 聖人住處의 寺塔을 守護하고 佛者들에게 供養할 것을 부탁하며, 또, 모든 龍王들은 오랜 과거이래 過去諸佛로부터 부탁을 받아 佛法을 수호하였으며 現在와 未來에도 世尊이 부탁한 대로 수호할 것을 다짐하는 기사도 보인다.¹²⁾ 이렇게 佛法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이로운 용을 福德龍 즉 法行龍이라고 하며, 이들 福德諸龍은 隨順法行하여 마음이 좋하므로 때를 맞추어 비를 내리고 五穀을 成熟시켜 豐樂安隱케 하여 災雹을 내리지 않으며 佛法僧 三寶를信하여 隨順法行으로 佛舍利를 守護한다¹³⁾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佛典에 보이는 佛教와 龍의 관계는 浮屠에 龍이 조각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즉 크게는 佛法守護의 의미로 작게는 舍利保護의 의미로 雲龍紋이 施紋되었던 것이다.

9) 金煥泰, 『三國遺事所傳의 新羅佛教思想研究』, 서울: 信興出版社, 1979, p. 234.

10) 『佛本行集經』卷 第31 二商奉食品 第35·上(大正新修藏經 第3卷 8000頁 上) “爾時迦羅龍王詣於佛所 …… 於世間中最初而得優婆塞名於畜生中 …… 所謂即是迦羅龍王”. 金煥泰, 앞의 책, p. 221. 재인용.

11) 同上, p. 800.

“爾時復更有一龍王名目眞隣陀 …… 即從佛受三自歸依及受五戒.” 金煥泰, 앞의 책, p. 222. 재인용.

12) 『大方等大集經』卷45 日藏分 護塔品 第13(新修藏 第13卷 pp. 292~294). 金煥泰, 앞의 책, p. 223. 참조.

13) 『正法念處經』卷18 畜生品 卷5之1(新修藏 第17卷 pp. 105~107).

“如是比丘 觀諸畜生 …… 降注時雨令國豐樂” 金煥泰, 앞의 책, pp. 224~225 참조.

2. 雲龍紋의 配置

雲龍紋은 부도에 조각되는 위치에 따라

- ① 下臺石에 나타나는 형식
- ② 中臺石에 나타나는 형식
- ③ 塔身과 屋蓋石에 나타나는 형식

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이 구분은 統一新羅 高麗 朝鮮의 時代區分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 時代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1) 下臺石에 배치되는 형식

新羅時代末期에는 下臺石 下段에 彫刻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雙峰寺 澈鑑禪師塔(868) 鷲谷寺 東浮屠, 同 北浮屠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는 좀 다른 배치를 보이는 것으로 禪林院址 浮屠가 있는데 中臺石 全面에 雲龍紋이 조각되어 있다. 이런 형식은 新羅時代에는 1基뿐이며 다음의 高麗時代에서 유행하게 된다.

2) 中臺石에 배치되는 형식

高麗時代가 되면 雲龍紋이 점차 下臺石 上段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여 中臺石 全面을 차지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禪林院址 浮屠의 例가 고려시대에 들어와 주류를 이루고 이 시대 부도의 특징이 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고려라는 새로운 시대에 따른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데, 基壇部에 있어서 方形이 생기는 등 八角圓堂形을 고수하던 것이 점차 와해되어 가는 경향과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있어 雲龍紋의 배치가 모두 中臺石 일색인 것은 아니며, 前代의 잔존양식 즉 하대석 하단을 고수하는 것들도 몇 基가 있어 서로 병행되고 있다.

3) 塔身과 屋蓋石에 배치되는 형식

朝鮮時代가 되면 雲龍紋이 塔身으로 올라와 塔身을 감싸는 형식이 되며 때로 屋蓋石에 龍頭가 조각되기도 한다. 檜巖寺址 浮屠는 그 좋은 例가 되며 塔身に 雲龍紋이 조각되는 것은 고려시대 후기로 추정되는 大圓寺 雙龍浮屠¹⁴⁾에서 그 先例를 볼 수 있다.

3. 雲龍紋의 形態

浮屠에 조각되어 있는 대체적인 雲龍紋의 형태는, 龍紋이 전래되었던 초기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세부적인 내용, 가령 비늘이라든가 수염 寶珠 火焰紋 등이 보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머리는 馬形이며, 뿔은 끝이 말린 雙角(㉠)으로 표현되고 있다. 입은 벌린 상태가 일반적이며 수염은 윤곽을 잡고 세부는 線刻으로 표시하는데, 용이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날리고 있어 운동

14) 金北 지방문화재 71호로 지정되어 있는 浮屠이며, 金鍾太, “大圓寺 雙龍浮屠와 五層石塔” 「考古美術」 87호 참조.

감을 더해준다. 비늘은 雙峰寺 澈鑑禪師塔을 비롯하여 鷲谷寺 東浮屠, 北浮屠 등 신라시대 말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고려시대 초기 興法寺 眞空大師塔에서부터 온 몸을 덮고 있다. 寶珠는 全時代를 통하여 보이는데 입에 물고 있기도 하고 서로 희롱하기도 하여 표현이 다양하다. 또한 고려시대 중기가 되면 眼象 內에 獨立된 문양으로 寶珠만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보주를 장식하는 火焰紋은 고려시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갈수록 화려해지나 조선시대가 되면서 형식화된다. 발가락은 3개가 보통이나 4개, 5개도 보인다. 몸통은 細長한 蛇形이며, 조선시대에는 특이하게 물고기같은 모양으로 변한다. 등에는 지느러미가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정리한 것이 도표 I이다.

Ⅲ. 造形樣式의 變遷

浮屠의 건립은 대체로 9세기 중엽경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운용문이 조각되어 있는 부도를 12基 선정하여 시대순에 따라 Ⅳ期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각 時期는 운용문의 위치와 형태가 前時期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전체적인 부도의 양식도 참고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浮屠의 年代下限은 17세기 중엽경으로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17세기 중엽 이후의 부도에는 운용문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無紋化 생략화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1. Ⅰ期(9세기중엽~10세기초)

흔히 羅末麗初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古代에서 中世로, 신라에서 고려로, 敎宗에서 禪宗으로 변하는 일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전제왕권과 골품제의 붕괴로 지배계층은 혼란에 빠지고 자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강력한 지방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상면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신라왕실의 불교는 교종이었는데, 교리에 치중하는 교종보다 선종이 유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풍수도참사상, 미륵신앙, 유학 등이 선종과 종합되고 있어서 이시기의 복잡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¹⁵⁾

浮屠의 건립은 문헌상으로는 7세기 중엽경으로 나타나고 있지만¹⁶⁾ 실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부도는 844년의 廉居和尚塔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시기 부도건립은 초기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종의 유행으로 각 선문마다 開山祖師를 기리기 위한 묘탑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 하였으며 일찍부터 石塔과 佛像을 만들어온 경륜과 축적된 기술에 힘입어 우수한 부도가 많이 건립되었다. Ⅰ期에 속하는 부도로는 868년 쌍봉사 철감선사탑, 선림원지 부도, 연곡사 동부도를 들 수 있다.

15) 邊大燮, 『한국사의 省察』, 서울:三英社, 1979, pp.113~114.

16) 『三國遺事』卷 第4, 圓光西學條 …… 年八十餘 卒於貞觀間 浮圖在三岐金谷寺 …… 鄭永鎬, 『新羅石造浮屠研究』, 서울:신흥사, 1974, pp.10~11 참조.

1) 雙峰寺 澈鑑禪師塔(圖 1) : 全南 和順郡 梨陽面 甌里 雙峰寺

이 부도의 건립연대는 禪師가 입적한 그 해 또는 이후 몇년 사이에 부도를 건립하는 당시의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하면 澈鑑禪師의 入寂年인 868년(成通9年)전후로 추정된다.¹⁷⁾

기단부에서 옥개석에 이르기까지 八角으로 이루어진 팔각원당형 부도의 典型을 보여준다. 현재 상륜부는 없으며 하대석 1매, 중대석과 상대석이 同一石, 塔身과 옥개석이 각각 1매씩 모두 4매석으로 구성되었다.

시멘트로 보강된 지대석 위에 기단부를 놓았는데 2단을 이룬 하대석은 下段에 雲龍紋, 上段에 사자가 조각되어 있다.(圖 2) 中臺石에는 8면에 가릉빈가¹⁸⁾를 양각하였는데 각 모서리는 半開한 꽃봉오리 형상이 조각되었다. 상대석은 안에 장식이 있는 仰蓮 위에 八角 臺石이 있어 二重으로 된 眼象 안에 형태가 다른 가릉빈가를 조각하였다. 塔身을 받든 부분에는 蓮花紋이 둘러지고 塔身은 각 隅柱에 圓柱形을 세우고 柱頭에는 柱料가 없혀 있으며 各 面에는 앞뒤에 門扉形, 4面に 四天王, 나머지 2面に 飛天像이 조각되어 있다. 옥개석에는 椽木과 기왓골이 模刻되고 암막새, 솟막새, 석가래까지 조각되었으며 옥개석 밑면에는 네 곳에 飛天像, 두 곳에 향로, 두 곳에 花紋이 조각되었다. 부도 전체를 섬세한 조각작품같이 각 면을 세밀하게 조각하였으며 수법도 뛰어나다.

하대석 하단에 조각된 雲龍紋도 예외는 아니다. 둥글게 말려올라가는 구름사이로 龍이 꿈틀거리고 있다. 前面에는 두마리의 용이 寶珠를 가운데 두고 앞발을 내밀어 희롱하고 있다. 얼굴은 馬形이며, 두개의 뿔이 뻗어 있다. 눈은 半球形이며 혀가 길게 나와 있다. 몸은 길고 매끈하며 등에 지느러미가 있다. 발가락은 3개로 마디가 있고 쪽 뺨은 다리에는 근육이 표시되었다. 뒷쪽에 있는 龍은 正面龍인데 머리에는 마디가 있는 뿔이 있고 콧수염이 보인다. 3마리 각기 다른 용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2) 禪林院址 浮屠(圖 3) : 江原道 襄陽郡 西面 黃耳里 米川谷 禪林院址

浮屠의 원위치는 현위치에서 중턱으로 50m쯤 올라간 곳이다. 부도의 형식은 지대석 위에 기단부를 놓고 그 위에 탑신부 옥개석 상륜부를 놓았을 것인데 현재는 기단부만 남아 있다.¹⁹⁾ 方形的 지대석 위에 八角의 하대석이 2段으로 놓였는데 하단에는 안상이 있고 無紋과 사자가 교대로 양각되었다. 상단은 平面이 원형인 重瓣 伏蓮花紋帶이다. 중대석엔 全面에 雲龍紋이 조각되었고 상대석은 仰蓮臺이다.

이 부도는 용의 세부문양뿐 아니라 배치양식에도 I 期の 부도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중대석에 雲龍紋이 나타나는 先例作이 되고 있다. 머리는 馬形이며 둥근 눈과 귀, 커다란 입에는 송곳니가 표

17) 『祖堂集』 卷十七.

“雙峰和尚嗣南泉諱道允 …… 賜諡澈鑑禪師澄昭之塔矣”

18) 佛經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가릉빈가는 梵語의 가라빈가(Kalavinka)를 번역한 것이다. 이 새는 극락정토에 깃들며 人頭鳥身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머리와 팔은 사람의 형상을 하였고 몸체에는 비늘이 있으며 머리에는 새의 깃털이 달린 화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19) 後代의 것으로 흥법사 眞空大師塔(904년), 高達寺址元宗大師塔(977년)에서 중대석에 운용문이 나타나는 등 기단부의 형태가 같으므로 전체적인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시되어 있다. 몸은 비늘로 덮혀 있으며, 머리를 곳곳이 들고 유연한 자세로 구름사이를 헤치고 있다.

건립연대는 선림원지에 있는 弘覺禪師塔碑(圖 4)와 관련시켜 886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886년이라는 추정을 따르는 근거로, 고려시대 작품으로 처음 중대석에 운용문이 조각되는 興法大師塔(940년)(圖 7)과 비교하면, 하대석 아랫단 측면에 안상을 두고 伏蓮花紋을 조각한점은 같으나 안상 안의 문양이 興法大師塔은 花形인데, 禪林院址 浮屠는 사자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下臺石에 사자를 조각한 例는 廉居和尚塔(844년), 大安寺 寂忍禪師塔(861년), 雙峰寺 澈鑑禪師塔(868), 鳳巖寺 智證大師塔(883년) 등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했던 문양임을 알 수 있다. 또 興法大師塔에서는 蓮花紋臺의 각 모서리에 귀꽃이 장식되고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浮屠의 雲龍紋(圖 3)과 塔碑의 螭首(圖 4)가 세부양식에 있어 同一한 모양과 수법을 보이고 있어 886년으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3) 鷲谷寺 東浮屠(圖 5) : 全南 求禮郡 土旨面 鷲谷寺

鷲谷寺에는 東浮屠, 北浮屠, 西浮屠가 있는데 그중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부도이다. 이 부도의 조성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통일신라 말기나 늦어도 고려초기라고 볼 수 있으며 各部의 구조와 양식면에서 아직 澈鑑禪師塔 계통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팔각원당을 기본형으로, 方形 지대석 위에 기단부와 탑신, 상륜부를 중첩한 일반형이다. 하대석은 八角 2段으로 하단에는 雲龍紋을 상단에는 사자를 조각하고 있다. 중대석은 낮은 편으로 각 면에는 안상 속에 八部神衆을 두었으며, 상대석은 重瓣仰蓮 위에 각 隅角마다 중간에 둥근 마디가 있는 柱形을 세우고 안에는 안상을 두어 가릉빈가를 조각하였다. 탑신 각 면은 門扉와 향로, 四天王像을 조각하였으며, 屋蓋石은 충실히 목조건축을 모방하여 二重 椽木과 기왓골을 模刻하고 아랫면에는 雲紋이 있다. 상륜부는 잘 보존되어 있는 편으로 仰花 위에 날개를 활짝 편 새를 조각한 石材를 얹고 다시 蓮花紋石의 보륜을 중첩하였다.

雲龍紋은 하대석 하단에 조각되었는데(圖 6) 8각의 각 면에 한마리씩 배치하였다. 머리는 馬形으로 보주를 입에 물고 있으며 몸통은 細長한 蛇形으로 비늘이 없다. 판을 파내듯이 조각되어 평면적이며 생략화가 현저하다. 澈鑑禪師塔의 雲龍紋(圖 2)이 下臺石의 평면을 圓形으로 만들 만큼 힘차고 입체적이었던 것에 비해 八角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조각되어 있어 시대가 내려감을 보여 준다.

이상으로 I 期の 浮屠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보여주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八角圓堂形을 충실히 따르는 전형부도에서 운용문이 조각되는 곳은 하대석 하단이며, 禪林院址 浮屠만이 이례적으로 중대석에 시문되고 있다. 둘째, 角은 澈鑑禪師塔에서만 보일 뿐 다른 곳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칠감선사탑이 신라시대 석조부도 가운데 문양이나 조각 수법 등이 절정에 달해 있으며, 그후는 점차 생략화 평면화의 길을 걷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몸에 비늘이 없다. 단, 선림원지 부도에서는 비늘이 보이고 있어 운용문이 조각되는 위치와

함께 다음시기의 先例作이 되고 있다.

넷째, 보주에는 장식문양이 없으며 구름은 등글게 말려올라가는 듯한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渡邊素丹교수가 작성한 중국 商代부터 청동기 및 공예품에 나타난 용의 통계표를 보고 韓·中 양국의 용문양 형태를 비교해보면²⁰⁾, 이 시기는 여러 모로 唐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표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寶珠의 문제다. 唐은 물론 宋代에도 보주는 표현되지 않으며 元代에 가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부도라는 石造物에 조각된 점에서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여도 이 시기의 운용문은 한국적인 운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것에서도 역시 한국적인 운용문이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2. II期(10세기 중엽~10세기말)

제II期는 혼란스러웠던 後三國의 분열을 종식시키면서 고려왕조가 성립된 시기로 太祖(918~943)부터 成宗(981~997)때까지를 이르며, 모든 면에서 前時代의 것을 계승하면서 고려적인 것의 기틀이 마련되는 단계이다. 고려가 중세 봉건주의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은 光宗代(949~975)부터 成宗代로 지방관제의 성립, 과거제 실시, 토지제도 확립, 收取체제의 개편 등 중앙집권체제를 완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前代를 이어 의욕에 찬 조형활동이 전개되었으며 대체로 전시대에 못지 않은 大作들과 새로운 秀作들이 만들어졌다. 太祖는 訓要十條에서

“신라말기에 부도를 다투어 짓더니 지덕을 쇠퇴하고 줄어들게 만들어 나라가 망하기에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것인가”²¹⁾

하여 후손들에게 浮屠의 남설을 경계하였으나 부도의 건립은 더욱 빈번해진다. 이것은 불교의 융성과 당시 승려의 지위로 보아 당연한 현상이며, 또한 그 墓塔이 화려하고 장중하게 조성되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직 先代의 전통을 잃지 않고 있는 초기 부도의 특징과 아울러 새로운 왕조에 의한 의욕적 표현이 병행되고 있다. 이 시기에 속하는 부도들은 興法寺 眞空大師塔(940년), 鳳岩寺 靜眞大師塔(965년), 高達寺址 元宗大師塔(977년)을 들 수 있다.

1) 興法寺 眞空大師塔(圖 7) : 국립중앙박물관(원위치는 江原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興法寺址)

부도의 건립연대는 高麗史 世家 太祖 23년條의 기록으로 보아 940년경으로 추정된다.²²⁾

이 탑은 方形 地臺石 위에 八角圓堂形의 기본형을 구성하고 있다. 하대석은 아래에 높직한 면을

20) 渡邊素丹, 「東洋紋樣史」, p.213 〈용의 통계표〉 참조.

21) 高麗史 世家2 太祖 26年 4月 …… 其二曰 …… 新羅之末 競造浮屠 哀損地德 以底於亡可不戒哉 …….

22) 『高麗史』 世家 太祖 23년條.

“秋七月王師忠湛死 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 親製碑文.”

두어 각 면에 花形이 장식된 안상을 조각하고 윗쪽에는 伏蓮을 두었는데 모서리마다 낮은 귀꽃이 장식되었다. 중대석은 평면이 거의 원형에 가까운 팔각으로 雲龍紋이 조각되어 있다. 상대석은 複瓣仰蓮花紋臺이며 角形의 2단 괴임이 있어 塔身을 받고 있다. 塔身에는 花形이 장식된 안상을 조각하고 前後에 門扉形과 자물쇠가 模刻되어 있다. 이 시기의 옥개석은 두가지 양식으로 나뉘는데, 鳳林寺 眞鏡大師塔(圖 8) 高達寺址 元宗大師塔(圖 12)과 같은 石塔形과 雙峰寺 澈鑑禪師塔(圖 1), 興法寺 眞空大師塔(圖 7) 계열의 木造建築形이다. 이 浮屠는 기왓골의 표시 암막새 솟막새를 모각하여 목조건축의 의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모서리마다 고사리문의 귀꽃이 장식되어 있다.

중대석 全面을 차지하고 있는 雲龍紋(圖 9)은 신흥국가의 패기와 기운을 잘 나타내고 있다. 머리는 馬形이고 고사리모양으로 끝이 말린 뿔이 있다. 입을 크게 벌려 咆哮하는 모습이며 수염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날리고 있어 맹렬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몸은 온통 비늘로 덮혀 있고 등에는 지느러미가 표시되었다. 모두 세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는 화염에 쌓인 보주를 희롱하고 한마리는 뒷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조각되어 있다. 머리를 곳곳이 세워 더욱 사나운 모습이며 둥글게 말린 雲紋 역시 조각이 깊고 기운차다.

이렇게 중대석 全面을 차지하는 雲龍紋의 例는 이미 선림원지 부도(圖 3)에서 보았으며, 고려시대 雲龍紋 浮屠의 특징이 되고 있다.

2) 鳳巖寺 靜眞大師塔(圖 10) : 慶北 聞慶郡 加恩面 元北里 鳳岩寺

이 塔은 봉암사 境內에서 좀 떨어진 於口 산중턱에 위치하며 건립연대는 塔碑 末尾에 보이는 銘文으로 미루어 965년경으로 추정된다.²³⁾

지대석에서 탑신에 이르기까지 全部材가 8각인 전형적인 八角圓堂形 浮屠이다.

높은 8각 지대석 위에 3단의 괴임을 마련하여 하대석을 받고 있다. 하대석 하단에는 花形이 장식된 안상을 조각하고 위에 甲石을 덮고 그 위에 雲紋으로 된 상단이 놓인다. 상단은 각 모서리에 둥근 구름기둥을 모각하고 각면에 특이한 안상을 두고 前面에만 상위에 舍利函, 寶蓋, 寶率 寶珠를 조각하였다. 상대석은 仰蓮을 조각하고 그 위에 두꺼운 甲石을 덮고 다시 2단의 괴임단을 마련하였는데 각 괴임단에는 난간을 돌리고 하단은 1柱씩, 상단은 2柱씩 短柱를 배치하였다. 팔각 탑신에는 隅柱가 刻出되고 前面에만 門扉形과 자물쇠가 조각되었다. 옥개석은 목조건축을 모방한 형식이며 轉角部에 反轉이 심하다. 相輪部는 仰花石 위에 寶輪이 있을 뿐이다.

I 期の 八角圓堂形 부도에서 하대석 하단에 조각되던 雲龍紋이 여기서는 상단으로 올라오고 있다. 상단은 다시 雲柱에 의해 8면으로 구획되고 上·下에 甲石形을 두어 마치 眼象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 가운데 화염에 쌓인 寶珠가 독립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左·右로 龍이 나타난다.

23) 靜眞大師는 光宗7년(956)에 입적하였으며 塔碑는 光宗16년(965)에 건립되었다. 塔碑는 浮屠를 조영하고 난 후에 건립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부도의 건립연대는 956년~965년 사이라고 할수 있으며 늦어도 965년에는 건립되었으리라 추정하여 下限인 965년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鄭永鎬, “高麗初期石造浮屠研究”, 「東洋學」 10輯, p.15 참조.

머리에는 뿔이 있고 둥근 눈을 가졌으며 입을 크게 벌려 혀를 내밀어 보주를 굴리고 있는 모습이다. 갈기와 수염이 안쪽으로 날리며 머리를 들어 포효하는 모습이다. 등에는 날카로운 지느러미가 있고 몸은 비늘로 촘촘하게 덮혀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圖 11)

寶珠가 독립적으로 한 면을 차지하고 나타나며 구획된 면에 한정되어 龍이 표현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어떤 틀 속에(가령 안상 內에) 龍을 표현한다든지 보주가 독립적인 문양이 되는 것은 11세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淨土寺 弘法國師塔(1017)(圖 17) 法泉寺 智光國師塔(1085)(圖 20)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始原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도는 전체적인 형식이나 표현에 있어 같은 경내에 있는 智證大師塔(883년)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다. 특히 甲石과 구름괴임단, 구름기둥의 표현 등 하대석 부분이 그렇다. 가룻빈가가 운용문으로, 奏樂天人像이 供養舍利函으로 변한 것 외에 조각수법이나 표면장엄에 있어 생략화와 형식화가 보이고 있어 시기가 내려감을 보이고 있다. 鷲谷寺 東浮屠, 北浮屠와 西浮屠의 관계, 高達寺址 浮屠와 元宗大師塔과의 관계에서처럼 先代作을 충실히 모방하여, 같은 지역내에서의 조성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高達寺址 元宗大師塔(圖 12) : 京畿道 麗州郡 北內面 上橋里 高達寺址

부도의 건립연대는 塔碑 末尾의 「開寶八年(975년)龍集淵默十月日立」이라는 銘文과 碑陰記에 「始丙寅年(광종 16년 : 966년) 郢工碑塔終至丁丑年(경종 2년 : 977년)功畢也」라는 기록으로 보아 977년으로 추정된다.

이 탑은 4매석으로 된 方形 지대석 위에 기단부 탑신 상륜부가 차례로 놓였는데 하대석이 方形을 보이고 있는 특이한 형식이다. 하대석은 복련대로 한 면에 5瓣씩 모서리에 1瓣씩 모두 24瓣의 單葉蓮花臺이며 위에는 중대석을 받기위한 方形의 괴임대가 놓여 있다. 중대석은 아랫쪽이 약간 넓으며 雲龍紋이 全面에 조각되었고 윗쪽에 8각의 1條帶가 있어 八角平面임을 암시하고 있다. 상대석은 큼직한 양련대이며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은 4면에 門扉形이 조각되고 다른 4면에 四天王像이 양각되었다. 옥개석은 석탑형으로 추녀는 수평이나 8隅의 轉角에는 反轉이 크고 고사리문의 귀꽃을 장식하였다. 상륜부는 8각의 露盤과 覆鉢 寶蓋가 중첩되고 보륜과 보주까지 남아 있어 비교적 완전한 편이다.

중대석의 운용문(圖 13)은 매우 특이하여 眞空大師塔(圖 9)과는 또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다. 즉 正面에 龜趺가 등장하는 것으로 龍頭化된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고 있다. 龍은 모두 4마리로 귀부 양편에 한마리씩 있고 뒷쪽에 보주를 희롱하는 두마리가 있다. 머리는 馬形이며 고사리모양의 뿔이 있다. 수염이 뒤로 날리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배는 이무기를 닮고 몸은 全面이 비늘로 덮혀 있다. 머리를 곳곳이 세우고 있으며 뒷쪽의 두마리는 서로 마주하여 화염문으로 장식된 보주를 한발씩 내밀어 받치고 있다. 雲紋은 굵게 조각되고 있으나 형식화가 보이고, 중대석 윗쪽은 마치 帶를 두른 듯 雲紋이 가지런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 부도는 여러 면에서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즉 先作인 眞空大師塔의 하대석이 八角인데 반해 方形으로 변하고 있으며, 중대석의 운용문에서 정면에 귀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운용

문에 귀부가 함께 조각되어 있는 부도로는 같은 경내에 있는 高達寺址 浮屠(圖 14)와 대구 경북대 박물관에 있는 浮屠(圖 15)가 있어 주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용문이 조각되는 곳은 중대석이 주를 이루어 이 시기의 특징이 되고 있다. 즉, I期에서는 禪林院址 浮屠에서만 나타나던 것이 II期에서는 主된 형식이 되고 있다. 또 기단부의 하대석 하단에 배치되었던 것이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上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운용문을 보면 뿔은 끝이 말린 모습을 보이며 몸 전체를 덮는 비늘이 표현되고 있고, 보주에 화염이 장식되고 있어 I期와 대조된다. 셋째, 조각이 기운차고 입체적이어서 중대석의 평면을 원형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뒤의 III期와 구별되고 있다. 또한 운용문에 귀부가 등장하고 지대석과 하대석이 方形으로 되어가는 등 이 시기는 점차 신라시대양식에서 탈피하여 고려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3. III期(11세기초~14세기말)

이 시기는 武臣亂(1170년)으로 政治, 經濟, 文化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光宗에서 成宗에 걸쳐서 이룩된 체제정비와 여러 개혁을 통해 사회기반이 다져지고 문물제도가 완비되어 11세기가 되면서는 중앙집권체제가 확고하게 성립되었고 대외관계에서도 자주적 외교정책으로 평화를 유지했으며, 宋, 日本 뿐아니라 西南方의 大食國의 상인들까지 내왕하여 使臣往來와 무역을 통한 文物交流가 빈번했다. 사상면에서는 顯宗(1009~1031)대를 기점으로 禪宗의 세력 약화와 함께 華嚴宗 法相宗이 자리를 잡게 되며, 아울러 중앙집권화과정에서 治國의 政治的 理念으로서 儒敎가 등장하여 儒風이 진작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과 국제관계의 평화, 빈번한 문물교류, 儒·佛의 융성이라는 전반적인 상황은 그대로 文化의 발전으로 이어져 文化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浮屠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異型樣式이 많아 나타나며 장식적인 면이 강화되어 한층 화려해지고 있다.

그러나 무신란 이후는 한마디로 봉건귀족사회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서 전기에 누적되어 온 모순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각종 제도의 붕괴 및 반란 전란으로 이어졌다. 또한 불교의 타락과 폐단은 정신적 지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아니라 미술활동에도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하였는데, 부도의 조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건립된 부도가 적을 뿐아니라 혹 있어도 간략화 형식화 등 퇴조의 경향이 현저하다.

III期에 속하는 것으로는 淨土寺 弘法國師塔(1017년), 法泉寺 智光國師塔(1085년) 靑龍寺 普覺國師塔(1393년)을 들 수 있다.

1) 淨土寺 弘法國師塔(圖 16) : 景福宮

原所在地는 忠北 中原郡 東良面 荷川里인데 1915년에 지금의 위치인 景福宮으로 옮겨졌다.

건립연대는 弘法國師의 入寂年代인 현종8년(1017)으로 미루어 그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²⁴⁾

이 부도는 八角圓堂形의 기본형을 지키고 있으나 塔身이 球形으로 변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八角의 지대석 위에 複瓣蓮花로 된 伏蓮石을 얹었으며 각 모서리에는 立狀의 귀꽃이 장식되었다. 윗면에 높직한 괴임대가 마련되어 중대석이 놓였는데 八角 各面에는 雲龍紋이 정교하게 조각된 안상이 있다. 상대석은 얇고 원형에 가까운데 밑은 仰蓮으로 장식되고 蓮瓣內는 花紋으로 장식되었다. 탑신은 圓球形을 이루는데 표면에는 탑신을 4면으로 구분짓는 二條의 양각선이 十字形으로 둘러졌으며 교차점에는 花形을 장식하고 있다. 옥개석은 별다른 조식이 없고 대부분 상실되었으나 각 轉角마다 귀꽃이 달려 있다. 옥개석 윗면이 단조로운 것과는 달리 아랫면은 삿갓모양으로 깊숙히 파여 있고 飛天像이 조각되었다. 현재 상륜부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塔身이 球形인 점이 앞의 부도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형식임을 보여 주며 중대석에 조각된 운용문(圖 17)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팔각으로 된 중대석에 안상을 조각하고 그 안에 운용문을 나타냈는데 수법이 섬세하고 정교하여 조각이 아니라 공예에 가깝다. 龍을 보면, 눈은 둥글고 벌린 입에서는 송곳니가 나와 있으며 귀가 뾰족하다. 수염은 단정하게 모아져 안쪽으로 날리고 있으며 촘촘한 비늘이 몸을 덮고 있다. 피어오르는 구름 속에 龍과 寶珠가 따로 한면을 차지하고 조각되었다. 보주 주위는 화염문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배치 상태는 가운데 보주를 두고 두마리의 용이 마주 보고 있으며 한면을 띠고 다시 龍—寶珠—龍의 형태로 배치되어 모두 4마리다. 부도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운용문에서도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성을 느낄 수 있다.

운용문이 구획된 면 안에 표현되고 있는 점, 寶珠와 구별되어 각기 독립된 문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龍과 寶珠가 각기 따로 표현되고 구획된 면에 조각되는 것은 靜眞大師塔(圖 11)에서 先例를 보이고 있으나 眼象 內에 조각되기는 이 부도에서 처음이며 이 시기에 속하는 智光國師塔, 普覺國師塔에서도 볼 수 있어 새로운 양식이 되고 있다.

2) 法泉寺 智光國師塔(圖 18) : 景福宮

이 탑의 원소재지는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法泉寺址이다. 日帝下에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것을 반환하면서 현 위치로 옮겨졌으며 6·25를 겪으며 파손되었던 것을 1957년에 복원하였다.

碑文에 의하면, 건립연대는 1085년으로 추정된다.²⁵⁾

이것은 八角圓堂形이라는 浮屠의 기본형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 부재의 평면이 方形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부도이다. 구조는 일반적인 형식대로 기단부와 탑신부 옥개석 상륜부로 되어 있다. 탑 전체가 풍부한 문양으로 조식되어 있어 마치 寶塔 내지 사리함같은 느낌을 주며 기교에 치우쳐 웅

24) 碑文 “有普高口口中原府故開天山淨土寺教諭法鏡大師 …… 天福八年歲次癸卯六月丁未朔五日辛亥立鑄字僧光壯超 辛聰行超” 秦弘燮, 崔淳雨 編著, 『韓國美術史年表』, 一志社, p.225, 鄭永鎬 『國寶 14—石造 II』, p.264 참조.

25) 碑陰記에 「大安元年歲在乙丑仲秋月 日樹」 ……라 기록되어 있다. 大安元年是 1085년이며 浮屠는 적어도 탑비가 건립되기 전에 조영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건립연대는 1085년을 下限으로 잡을 수 있다.

건한 기품이 결여되어 있다. 紋樣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이 다양하고 특이한데 같은 문양이라도 장소에 따라 변화를 주고 있으며 특히 西域美術의 영향을 보이는 문양이 있어 주목된다.

운용문은 상층기단 면석(圖 19)에서 볼 수 있는데, 면석 전체가 아니라 東西에만 한정되며 다시 2개의 안상으로 나누어져 神仙과 함께 조각되었다. 눈, 귀, 입 등 얼굴의 표현, 형식적인 비늘의 표시, 세장한 몸의 표현에서 전체적으로 섬약하고 평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름이 규칙적인 형태를 보이며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특이하다. 寶珠는 층을 달리하여 하층기단 면석(圖 20)에 조각되었다. 각 면을 2개로 나누고 안상 안에 화염에 쌓인 보주를 조각하였다. 용과 보주가 따로 표현되는 것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여기서는 각기 다른 층에 조각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보주문이 하층기단 면석을 전부 차지하고 있어 운용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조각성이 강한 용보다 장식성이 강한 보주가 주문양화되어 가는 것으로 표면장엄의 문양화 형식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3) 靑龍寺 普覺國師塔(圖 21) : 忠北 中原郡 蘇臺面 五良里 靑龍寺址

전체구조는 지대석에서 옥개석에 이르기까지 8각원당형을 따르고 있다.

높은 8각의 지대석 위에 하대석이 놓였는데 아랫단 측면은 無紋이며, 윗단에는 三山形 花瓣이 조식된 伏蓮이 조각되었다. 중대석은 배흘림이 현저하며 8면에 안상을 두고 사자와 운용문을 교대로 배치하였다. 상대석은 아랫면에 仰蓮, 윗단은 無紋이라 하대석과 대조된다.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탑신에는 안상 안에 神將像을 조각하였으며 각 모서리에는 역시 배흘림이 현저한 圓柱를 두었는데 蟠龍이 감고 있다. 옥개석은 목조건축물을 모방한 듯 창방, 추녀, 사래 등이 양각되었고 낙수면은 급경사로 기왓골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습閣마루에 龍頭를 놓은 점이 특이하다. 상륜부는 옥개석 정상에 八瓣의 單葉伏蓮을 돌려 괴임을 이루고 보주를 놓았다.

중대석 안상 안의 운용문(圖 22)을 보면 뿔이나 수염은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며, 보주에도 화염문이 사라지고 있다. 기운이 빠진 듯 포효하는 기백은 찾아볼 수 없다. 비늘도 형식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雲紋 역시 형식적이다. 탑신 각 모서리의 圓柱를 기어오르는 蟠龍의 형태는 비늘로 덮힌 몸과 감아 올라가는 모습이 비교적 사실적이며, 沃溝 鉢山里石燈의 竿柱와 神勒寺 普濟尊者石鐘 앞에 있는 石燈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塔碑에 의하면²⁶⁾ 건립연대가 1393년으로 추정되어 흔히 조선시대 부도로 분류되지만 아직 고려적 양식과 수법이 현저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려시대 후기의 작품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으니, 우선 탑신과 중대석에 배흘림이 현격하여 조선시대 원형의 탑신을 예견하고 있으며 8각이 점차 해이해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석 안상 내에 운용문을 장식하는 것, 하대석 상대석에 연화문을 장식하는 것 등은 고려적 특성이나 귀꽃장식이 없어지고 龍頭가 조각되며 탑신에 蟠龍이 장식되는 것은 새로운 양식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

26) 「朝鮮金石總覽」 下卷 722頁 참조.

鄭永鎬, “朝鮮前期 石造浮屠樣式의 一考察”, 「東洋學」 제3집, p. 341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Ⅲ期の 대표적인 浮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문화의 난숙기라 할 수 있는 11세기에는 과도기적 양상이 사라지고 고려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섬세하고 장식성이 강한 부도들이 나타나며 異型浮屠도 제작된다. 둘째, 운용문은 Ⅱ期和 같이 중대석에 조각되고 있으나 말기로 가면서 탑신이나 옥개석에도 보이고 있어 上向性を 보인다.

셋째, 운용과 보주가 독립적인 문양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며, 안상 안에 표현되고 있다. 즉 Ⅱ期에서처럼 자유로운 조형이 아니라 제한된 면적에서 조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시기의 독특한 표현으로 후기로 가면서 운용문은 안상을 벗어나 탑신이나 기단부에 조각되며 보주 역시 함께 조각되고 있다. 넷째, 운용문의 세부표현이 점차 생략화 형식화가 심화되어 전체적으로 섬약한 느낌을 준다.

4. Ⅳ期(14세기말~17세기중엽)

조선시대는 승유억불정책으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통해 천여년간 국교로서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따라서 불교미술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부도 역시 더이상의 발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부도로는 石鐘形이 많은데 그것은 만들기가 쉽고 간단하였을 뿐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과도 잘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Ⅳ期에 속하는 부도로는 檜岩寺址 無學大師塔(1407년), 奉印寺 舍利塔(1620년), 鷲谷寺 西浮屠 등을 들 수 있다.

1) 檜岩寺址 無學大師塔(圖 23) : 京畿道 楊州郡 檜泉面 檜岩里 天寶山 檜岩寺址

부도의 건립연대는 碑文에 의해 대사의 입적후 2년이 지난 1407년경으로 추정된다.²⁷⁾

이 부도는 후일에 나타나는 王家 胎室의 經營과 비슷한 점이 있다. 즉, 높고 넓직한 8각의 石壇과 석단 위에는 각 隅柱마다 方形의 石柱를 세우고 정상에 寶珠形을 조각하고 있으며 石柱사이에는 長大石을 끼우고 童子柱를 세워 난간을 돌린 부도를 봉안하기 위한 일종의 장엄이 둘러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八角의 지대석은 각 면마다 굵은 雲紋이 조각되었으며 모서리에 있는 것은 특히 크다. 하대석은 無紋의 面石과 복련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서리에 작은 귀꽃이 장식되었다. 중대석은 배가 부른 八角形으로, 花形을 조식한 안상이 있다. 상대석은 양면적으로 윗면에는 방형의 구획 안에 당초문이 조각되었다. 탑신은 球形으로 全面에 운용문이 빈틈없이 조각되었다(圖 24). 옥개석은 목조건축을 모방한 흔적을 보이며 隅棟의 하단부에 龍頭를 배치하고 있다. 상륜부는 2단의 圓臺 위에 보주를 얹은 간단한 형태이다.

塔身을 감싸고 있는 운용문의 형태를 보면, 一見하여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형태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다. 넓적하고 투박한 느낌을 주는 커다란 얼굴, 넓은 입과 코, 장갑을 낀 듯한 발가락,

27) 「朝鮮金石總覽」下 1281頁참조.

몸통의 표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조선적인 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細長한 蛇形에서 魚形과 혼합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正面龍과 보주를 회룡하는 측면룡 2마리로 모두 3마리가 全面을 꽉 메우듯 크게 표현되었다. 또 보주에는 속에 둥근 것이 표시되었을 뿐 전시기에 보이던 정교한 화염문양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상대석에 당초문이 보이고 있어 여러모로 Ⅲ기와는 구별되는 양식을 보인다.

2) 奉印寺 舍利塔(圖 25)²⁸⁾ : 국립 중앙박물관(원소재지는 京畿道 南楊州郡 奉印寺 浮屠庵)

이 탑은 광해군 12년(1620년) 王世子의 수복무장을 기원하기 위해 건조된 것으로 무학대사탑에서와 같은 형식의 봉안을 위한 장식을 하고 있다.

기본구조는 무학대사탑과 같으며 전체적인 평면은 원형을 이루고 있다. 하대석은 귀꽃이 달린 연화문이 둘러지고 중대석은 배가 부른 원통형이며, 괴임단 없이 상대석을 받고 있다. 상대석 아랫면은 연잎 끝에 고사리문이 장식되었으며, 윗면은 上·下에 각을 돌려 단을 짓고 가운데에 당초문을 양각하였다. 탑신은 球形으로 全面이 雲龍으로 장식되어 있다. 옥개석은 8각으로 隅棟에 龍頭가 보인다. 상륜부는 一石으로 복발 보개 보주를 장식하였다.

탑신을 감싸고 있는 雲龍紋(圖 26)은 머리는 馬形이며 크고 둥근 눈과 귀가 보이며 입을 벌려 이를 드러내고 있다. 수염은 뒷쪽으로 자연스럽게 날리고 있으며 비늘이 온 몸을 덮고 있다. 발가락은 끝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며 마디가 표시되었다. 꼬리, 넓적한 몸통, 비늘 등 魚類와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용을 감싸고 도는 구름은 흐르는 듯 풀어진 모양이며 고사리紋이 섞여 있다. 운용문은 무학대사탑(圖 24)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퇴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3) 鷲谷寺 西浮屠(圖 27) : 全南 求禮郡 土旨面 鷲谷寺

이 부도는 연곡사에 있는 3基의 浮屠 가운데 하나이다.

이 부도는 팔각 탑신 후면의 銘文 “逍遙大師之塔，順治六年庚寅”에 의해서 건립연대가 1650년 경으로 추정된다.

지대석에서 옥개석에 이르기까지 全部材가 8각인 전형적인 팔각원당형 부도이다.

하대석은 無紋의 높은 面石이 있고 윗부분은 원형에 가까우며 운용문이 조각되었다. 上面에서 쇠시리(moulding)가 있고 주위로 홈이 파여 있다. 중대석은 扁球形으로 上·下에 연화문이 대칭으로 양각되었다. 상대석은 仰蓮臺이며 높은 받침이 있어 탑신을 받는다. 八角 塔身에는 前面에 門扉形을 조각하고 반대면에는 銘文이 있으며 나머지면에 神將像이 있다. 옥개석은 椽木이 模刻되었으며 각 모서리에 큰 귀꽃이 장식되었다. 상륜부는 仰花, 扁球形 覆鉢, 寶蓋, 寶珠가 차례로 놓인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28) 이 부도는 승려의 묘탑이 아니라 왕세자의 수복무장을 기원하기 위해 건조한 것으로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부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양식이나 수법등이 조선시대 부도양식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 연구대상으로 삼아도 무리가 없으므로 포함시켰다.

하대석 윗면에 조식된 운용문(圖 28)은 거의 평척으로 눈과 입 등 형체만 나타나고 있으며 생략화가 심해 자세한 것은 알아보기 힘들다. 이 운용문은 앞의 두 운용문과 다르며, 부도 구조 자체도 전혀 다르다. 즉 I期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같은 경내에 있는 東浮屠(圖 5) 혹은 北浮屠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중대석의 배가 부른 팔각형과 上·下문양, 탑신에 쓰여진 銘文과 八部神衆의 표현에서 시대의 하강이 여실히 보이지만 조선시대 부도 중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수작이다. 浮屠와 塔碑를 별도로 건립하지 않고 塔身이나 다른 部材에 刻字하는 예는 조선시대에 보이는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雲龍紋이 조각되는 곳은 기단부와 탑신부로 나눌 수 있다. I期에서 IV期까지의 경향을 고려해볼 때, 기단부에 나타나는 것은 잔존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탑신부를 감싸면서 나타나는 것을 새로운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둘째, 龍의 형태가 前代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략화가 심했던 III期 후반과는 달리 세부표현이 완전해지며 細長하던 몸통이 넓적해지고 있다. 비늘, 꼬리, 지느러미가 魚類의 그것과 유사하여 前代의 蛇形과 비교된다. 셋째, 塔身이 원형으로 되고 門扉, 天人像, 神將像 대신 雲龍紋이 조각되고 있는 것은 구형의 탑신에 표현이 자유로운 雲龍紋이 적합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IV. 結 論

雲龍紋이 조각된 浮屠를 대상으로 造成背景 및 각 時期別 樣式變遷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雲龍紋이 浮屠의 표면장엄으로 쓰이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龍과 佛敎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넓게는 佛法守護의 뜻으로, 작게는 사리를 보호하며 승려들의 成佛을 기원하는 한편 高僧들의 존엄과 권위 그리고 제자들의 존경 승양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조각되고 있다.

둘째, 雲龍紋이 조각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변화를 보인다. I期에는 기단부하대석 하단에 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II期로 가면서 하대석 상단이나 중대석에 나타나고, III期에는 중대석에 조각될 뿐아니라 眼象 속에 표현되기도 하여 이 시기의 특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미술의 전반적 특징인 장식화 공예화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期가 되면 운용문은 기단부를 벗어나 탑신에 조각되며 옥개석에 龍頭가 보이기도 하여 점차적으로 上向性을 보이고 있다.

셋째, 형태면에서는 초기에는 비늘이 없고 보주에도 장식이 없었으나 II期로 오면서 세부표현이 다양해지고 있다. 즉 비늘이 보이고 끝이 말린 형태의 뿔이 표현되며 보주 주위에 화염문양이 장식된다. 그러나 IV期가 되면서 운용문은 투박하고 넓적해져서 魚類와 혼합된 모습으로 변하며 보주 또한 장식문양이 사라지고 있다.

넷째, 구름은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표현되지는 않지만 龍이 입체적이고 사실적이면 雲紋도 깊게 조각되고 용이 형식적이고 평면화 경향을 보이면 雲紋도 흐르듯 풀어져 얇게 조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흐름을 가진 운용문을 탐비의 螭首부분과 비교해봄으로써 석조미술의 흐름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I 期에 해당하는 시기의 塔碑의 이수부분은 外形이 불규칙하고 조각이 깊으며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역시 II 期에 해당되는 고려초기에도 울퉁불퉁한 외형을 가지며 입체적으로 조각되고 있다. 그러나 III 期로 들어서면서는 외형이 정리되어 틀 안에 들어가게 되며 잔잔하게 조각되고 있다. 또한 이시기에 이르러서 신라시대 이래의 탐비형식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부도에서 이형양식이 나오게 되는 것과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양식이 말기에 더욱 성행하고 IV 期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의 이수부분은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부도에 있어서 달라진 운용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운용문의 양식변화는 다른 석조미술품의 대체적인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II 期에 해당하는 高達寺址에 있는 元宗大師塔과 無名浮屠, 그리고 대구 경북대에 있는 浮屠는 중대석에 귀부와 운용문이 함께 조각되어있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런 양식은 이들 세 부도에서만 보이고 있어 일정기간 혹은 동일한 지역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운용문의 양식적 변천은 各時代 석조미술에 나타나는 장식문양의 변천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식변화의 간접적 원인으로는 당시는 불교교리와 종파의 변천, 시대적 상황 등 여러가지로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그리 쉽게 결론지을 수 없으며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도표 I

浮屠名	建立年代	머리형	뿔	눈	입모양	수염	비늘	보주	화염문	귀	자태	지느러미	위치	갯수	기타
雙峰寺澈鑑禪師塔	868	馬形	雙角	有	開	有	無	有	無	有	蛇	有	하대석 하단	3	
禪林院址浮屠	886	馬形	無	有	약간벌림	無	有	有	無	有	蛇	無	중대석		
鷲谷寺東浮屠	나말여초	馬形	無	有	약간벌림	無	無	有	無	無	蛇形	無	하대석 하단	8	
鷲谷寺北浮屠	나말여초	馬形	無	有	약간벌림	無	無	無	無	無	蛇形	無	하대석 하단	8	
甲寺浮屠	고려초						無				蛇	無	하대석 상단		
興法寺眞空大師塔	940	사나운 짐승	有	有	開	有	有	有	有	有	蛇	有	중대석	3	
鳳巖寺靜眞大師塔	965	馬形	有	有	開	有	有	有	有	有	蛇	有	하대석 상단	2	보주가 독립적으로 표 현됨
高達寺址元宗大師塔	977	馬形	雙角	有	다물고 있음	無	有	有	有	有	蛇	有	중대석	4	귀부와 함께 표현
高達寺址浮屠	940~977	馬形	雙角	有	벌리고 있음	有	有	有	有	有	蛇	有	중대석	4	귀부와 함께 표현
普願寺址法印國師塔	978	馬形	有	有	약간벌림	有	有	有	無	有	蛇	無	하대석 상단	4	
石造浮屠	고려	馬形	有	有	벌림	有	有	有	有	有	蛇	有	중대석	4	귀부와 함께 표현
石造浮屠	고려	馬形	有	有	벌림	無	無	有	有	有	蛇	無	하대석 상단	4	

淨土寺弘法國師塔	1017	馬形	無	有	약간별림	有	有	有	有	有	蛇	無	중대석	4	眼象안에 표현. 보주가 독립문양화
法泉寺智光國師塔	1085	馬形	無	有	다물고있음	無	有	有	有	無	蛇	有	상층기단	2	眼象안에 표현 보주가 독립문양화
實相寺浮屠	고려	馬形	無	有	별림	無	有	無	無	有	蛇	無	하대석상단	2	비늘 대신 연꽃, 구름 모양이 몸을 덮고 있음
大圓寺雙龍浮屠	고려	馬形	無	有	별림	有	有	有	有	有	蛇	無	탑신	2	백운모편암을 사용
靑龍寺普覺國師塔	1393	馬形	有	有	약간별림	有	有	無	無	有	호랑이	無	중대석	4	탑신 옥개석에도 龍이 표현
檜岩寺址浮屠	1407	馬形	녹각형	有	약간별림	有	有	有	無	有	물고기 혼합	有	탑신	3	당초문, 蓮紋이 표현
檜岩寺址浮屠	조선	馬形	有	有	약간별림	有	有	無	無	有	蛇	無	하대석하단		당초문, 蓮紋이 표현
金時習浮屠	1493	악어형	無	有	약간별림	有	有	有	문양有	有	蛇	有	중대석		지방양식[전통양식]으로 남음
奉印寺舍利塔	1620	馬形	無	有	약간별림	有	有	無	無	有	물고기 혼합	有	탑신		왕세자의 수복무장을 기원하는 사리탑
鷲谷寺西浮屠	1650	馬形	無	有	약간별림	無	無	無	無	無	蛇	無	하대석하단		탑신에 銘立이 있음



〈圖 1〉雙峰寺 澈鑿禪師塔



〈圖 2〉澈鑿禪師塔 基壇部



〈圖 3〉禪林院址 浮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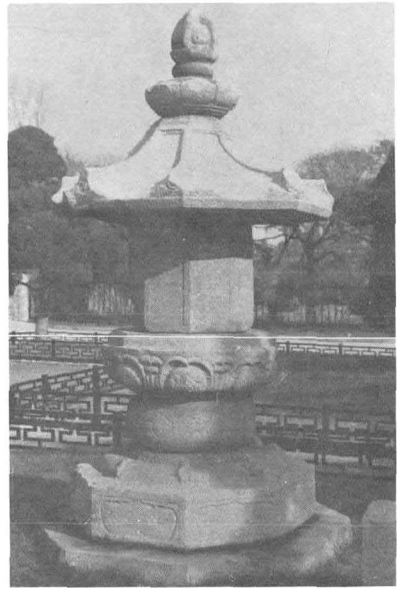
〈圖 4〉禪林院址 弘覺國師塔碑



〈圖 5〉 薰谷寺 東浮屠



〈圖 6〉 薰谷寺 東浮屠 下臺石 下段 雲龍紋



〈圖 8〉 鳳林寺
眞鏡大師塔



〈圖 7〉 興法寺 眞空大師塔



〈圖 9〉 眞空大師塔 中臺石 部分



〈圖 10〉 鳳巖寺 靜真大師塔



〈圖 11〉 靜真大師塔 下臺石 上段部分



〈圖 13〉 元宗大師塔 中臺石 雲龍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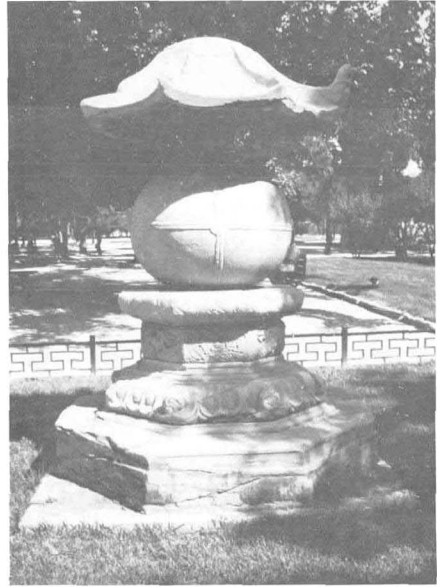
〈圖 12〉 高達寺址 元宗大師塔



〈圖 14〉 高達寺址 浮屠



〈圖 15〉慶北大學內 石造浮屠



〈圖 16〉淨土寺 弘法國師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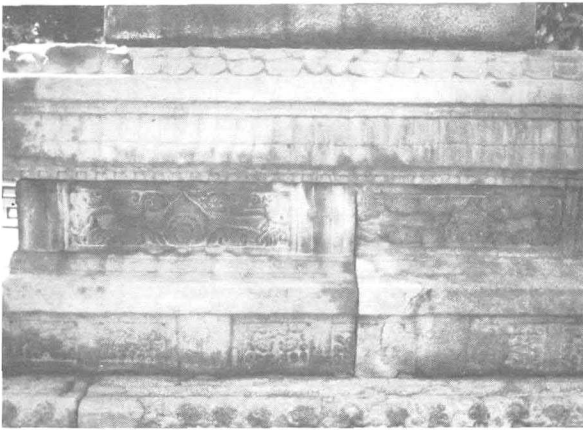
〈圖 17〉弘法國師塔 中臺石 部分 雲龍紋



〈圖 18〉法泉寺 智光國師塔



〈圖 19〉智光國師塔 上層基壇 面石部分



〈圖 20〉智光國師塔 下層基壇 面石的 寶珠紋



〈圖 21〉青龍寺 普覺國師塔



〈圖 22〉普覺國師塔 雲龍紋斗 蟠龍



〈圖 23〉檜岩寺址 無學大師塔



〈圖 24〉 無學大寺塔 塔身部 雲龍紋



〈圖 25〉 奉印寺 金利塔



〈圖 26〉
奉印寺 金利塔 塔身部 雲龍紋



〈圖 28〉 鷲谷寺 西浮屠 下臺石 雲龍紋



〈圖 27〉 鷲谷寺 西浮屠